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가 安風 불리”

“안철수 신당”이 뜨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그룹 일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많은 약속을 했고 복지공약 축소 등은 예산상 부득이 했다고 하지만, 정치쇄신 공약과 검찰개혁 공약을 저버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1년 동안 굉장히 미흡했다”고 평가한 뒤 “특히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와 그 의혹에 대해 실체가 보이는데도 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털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치·검찰쇄신 외면 부끄러운 일**  
**정부조직·공기업 개혁 이뤄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리했어야**

그는 이어 “현 정부는 전 정부 때의 일이라고 하지만,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한) 의심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감한 인사권을 행사해 정리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지금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표를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조직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이자율이 1%만 올라가도 부채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에 대해 “정당은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며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정강·정책 발표도 없이 이런 저런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당은 공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밝힌 뒤 사람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찰했지만, 당장 지방선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철수 신당이 독자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공약후보를 낸다면 아권은 자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3자 구도로 가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고, 신당 때문에 서울시장 등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신당은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제도와 중앙당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대한 중앙당은 독재시절의 유산으로, 정당을 원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천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이번 선거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은 10만 이하의 군과 자치구에서 공천을 폐지하고, 40만 인구가 되는 시로 공천폐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경선은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에서 유리한 후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가 우리 여건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를 혼동하고 있다”며 “보수는 극우와, 진보는 극좌와 거리를 두고, 보수와 진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 교수, 법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최저가 입찰방식 적용

2016년 발주 1조9천억 투입... 저심도로 건설 터키입찰 배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16년 발주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에 최저가입찰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철도처럼 대형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터키입찰이 일반적이지만,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의 경우 공법이 비교적 쉽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은 길이 15~25m에 달했던 도시철도 1호선과 달리 7~8m에 불과한 저심도로 건설되는 만큼 공법이 어렵지 않은 일반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한 건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입찰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이번 최저가입찰방식 도입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개입되면서 잦은 구설수에 올랐던 터키입찰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은 차량기지(유덕동)~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광주역까지 17.06km이며 2019년 완공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구간에서 광주천을 지나고, 상무역과 남광주역 등 환승역 2곳이 있지만,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한 구간은 아니어서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건설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1단계를 3~4공구로 분할 발주할 계획이며, 2호선 2단계(2019~2022년·20km), 3단계(2022~2024년·4.84km) 입찰방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 구간의 공법이 1단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해당 구간도 최저가입찰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입찰방식이 예산절약에는 효과적이지만, 땅속 공사를 하는 지하철 건설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공사 변수 등으로 난공사가 진행될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호선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남광주역~광주역~전남대~철단지구~수안지구~시청까지며,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2곳이 건설된다.

총 연장은 41.9km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9053억원(국비 60%, 시비 40%)이 투입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강시장 “구치소, 교도소 이전 복구 삼각동에 건립돼야”

U대회 남북단일팀·시베리아 횡단철도 호남 연결 주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구치소 부지와 관련해 “광주교도소가 이전되는 복구 삼각동 인근에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법무부가 구치소를 복구 문동동 현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하려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높다”면서 “특히 현 교도소부지는 5·18 사적지로서 지정돼 시민정서로 보면 여기에 구치소를 건립하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다만 광주와 대전만 단독 구치소가 없고 교도소 내에 있는 만큼 구치소

를 별도로 건립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삼각동에 짓는 광주교도소 부근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광주 U대회와 관련해선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U대회 조직위는 단일팀 구성시 종목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무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서 호남을 배제하고 있다”며 부산과 함께 양대 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本 社 人 事

- ▶ 柳濟寬: 편집국 편집1부장
  - ▶ 裴棟傑: 편집국 편집1부(부장)
  - ▶ 馬成晚: 편집국 편집1부(부장)
  - ▶ 崔宰豪: 편집국 사회부장 겸 체육부장
  - ▶ 陳判庸: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부장
  - ▶ 林東俊: 경영지원본부 출판부 부장
  - ▶ 洪幸基: 편집국 경제부장 겸 여론매체부장직무대리
  - ▶ 張必洙: 편집국 정치부장직무대리
  - ▶ 宋基東: 편집국 사회2부장직무대리
  - ▶ 鄭在景: 편집국 편집2부장직무대리
  - ▶ 林東煜: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직무대리 (부장직무대리)
  - ▶ 燕熙鍾: 편집국 사회부 사회팀장 (부장직무대리)
  - ▶ 金大成: 편집국 경제부 차장
  - ▶ 朴正旭: 편집국 사회부 차장
  - ▶ 金芝乙: 편집국 사회부 차장
  - ▶ 金昌華: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여성주재 차장
  - ▶ 金九玉: 독자서비스국 판매부 차장
  - ▶ 尹錫: 문화사업국 문화홍보부 차장
- (2월 13일자)

# 2013년 한국 출산율 1.18명... 전년보다 떨어져

복지부, 저출산대책 효과 미미

2013년 한국 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집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인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출산율 1.3명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 것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 그 덕분에 2012년까지 출산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원하는 시간제 보육만 도입, 야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226-증-52297호

# 老안시려

#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대동 노인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박은광주안과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IBS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